



문서번호 : 22-10-사무-0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전송일자 : 2022. 10. 26.(수)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2:00~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27일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2. 재일동포 인권 침해의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지구촌동포연대 등이 함께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홍익표 국회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3. 이날 토론회는 조영선 민변 회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당사자가 말하는 ‘재일동포 인권상황’, ‘재일동포 인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며,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장완익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선다.

4. 먼저 제1세션에서는 김수환 우토로 평화기념관 부관장, 김영지 재일동포 변호사, 강종헌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창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무처장 등이 재일동포 인권상황을 발표한다.
5.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구량옥 재일동포 변호사,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조영관 변호사가 재일동포 인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6. 민변 조영선 회장은 “해방 후 일본에서 귀국하지 못한 재일동포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일동포의 역사를 조명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재일동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주관하는 2022년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10월 25일~28일)”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끝/

- 붙임1. 토론회 포스터

2022. 10.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붙임1. 토론회 포스터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2년 10월 27일(목) 12:00~14: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0호)

세션1 당사자가 말하는 '재일동포 인권 상황'

- 우토로 사건 (김수환 우토로 평화기념관 부관장)
-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배제 사건 경과 보고 (김양지 재일동포 변호사)
-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내용 및 결과 보고 (강종현 재일동포유학생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각종 공작사건 보고 (김창오 한통련 사무장)

세션2 재일동포 인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재일조선인 차별과 혐오 범죄의 현황과 과제 (구량옥 재일동포 변호사)
- 국내 체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법적 문제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KIN 사무국장)
- 조선적 재일동포 출입국 관련 법적 쟁점 (조영관 변호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민형배

주 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포럼 진실과정의,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KIN

문의

이재정 의원실 (02-784-26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70-5176-8167)